제 2 장 서양 고대 철학

1. 플라톤의 철학은 형상(eidos), 즉 보편자를 지향한다.

1) 보편자는 상기(anamnesis: recollection)에 의해 다시 찾아지는 것이다.

◇ 산파란 자신이 스스로 아이를 낳는 존재가 아니라 산모로 하여금 아이를 낳도록 돕는 존재이다. 소크라테스(Socrates, BC469-BC399)와 플라톤(Platon, BC428/427-BC348/347)은 철학을 하나의 산파술, 즉 진리를 낳는 대화로 이해하고 있었다.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리를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.
◇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진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입하지 않고,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상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. 그러나 과연 그럴까? 산파는 몰래 자신의 아이를 상대방에게 잉태시켰던 것 아닐까? 어쨌든, 플라톤에게 진리가 'aletheia'라고 표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. 이것은 '레테(lethe)'라는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진리가 찾아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.

2) 플라톤의 우주론은 제작자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.

◇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, 세 가지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그것이 바로 제작자(demiourgos), 형상(eidos), 그리고 아낭케(ananke)이다. 여기서 '제작자'는 '아낭케[무질서하고 방황하는 무한정자(apeiron), 즉 질료의 세계]'에 '형상'이란 한정(peras)을 주어 세계를 탄생시킨다.
◇ 플라톤의 생각은 어떤 꼬맹이가 플라스틱 모형으로 모래를 찍어서 특정한 모래성을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. 여기서 꼬맹이는 제작자, 플라스틱 모형은 형상, 그리고 모래는 아낭케로 비유될 수 있겠다.

2.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제 1 실체, 즉 개별자로부터 출발한다.

1)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제 1 실체로, 보편자를 제 2 실체로 생각한다.

◇ 여기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바로 제 1 실체[=개별자]이다. 반면 플라톤이 생각하던 '인간'이란 형상[보편자]은 기본적으로 그로부터 추상화되어 나타나는 제 2 실체에 불과한 것이다. 다시 말해 내 눈앞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등장하는 '강신주'가 제 1 실체라면, '사람'이라는 보편자는 그로부터 추상되는 제 2 실체라는 것이다. 잊지 말아야 할 것은 '강신주'와 같은 제 1 실체가 없다면 '사람'이란 제 2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.
◇ 플라톤 사유에서 형상이 가졌던 위상이 아리스토텔레스(Aristoteles, BC384-BC322)에게 있어서는 제 2 실체로 사유된다. 그러나 플라톤의 형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 2 실체는 확연히 구분되어야만 한다. 플라톤의 형상은 개체가 소멸되면, 질료로부터 떨어져 나와 영원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사유된다.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 2 실체는 제 1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. 제 2 실체란 제 1 실체가 있을 때에만 사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.

2) 제 1 실체는 형상(eidos: forma: form)과 질료(hyle: materia: matter)가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사유된다.

◇ 플라톤이 사용했던 형상이란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.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플라톤의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제 2 실체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.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란 개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. '강신주'는 분명 변화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주를 강신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이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.

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조직이나 기능을 ‘형상’이라는 부른다. 결국 강신주란 제 1 실체는 ‘강신주의 구조’[=형상]와 현재 ‘강신주를 이루고 있는 질료’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.